

교구 종합의 준비

교구 종합은 교구 전역의 온 하느님 백성이 식별한 주요 결실들을 전달한다. 이 종합은 최대 열 장의 서면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지, 영상, 이야기, 예술적 표현, 개인 증언과 같은 기타 자료들이 참가자들의 체험과 의견들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교구 종합에는 표현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참가자들의 체험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종합은 일련의 일반화되거나 교리적인 정당함의 언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식별과 대화에서 나온 모든 것에 충실해야 한다. 서로 반대되는 시각일지라도 삭제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시각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언급해야 한다. 그저 참가자 가운데 소수가 표명한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때로는 소위 ‘소수 의견 보고서’의 관점이 하느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증언이 될 수도 있다.

종합의 내용은 제안으로서 제시된 다음 질문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그 목적은 교구민들의 시노드 체험과 식별의 다양한 결실, 통찰, 기쁨, 도전 과제들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 자문 **과정**에 관해서 교구에서 밝은 주요 순서들은 무엇이었는가? 제기된 주요 질문들은 무엇이었는가? 최대한 많은 참가자를 참여시키고 변방에 다가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 교구민은 얼마나 되는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참가자들 그룹이 있었는가? 어떤 사유로든 참가하지 않은 특정 그룹이 있었는가?
- 자문이 이루어진 전체 **체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좋았던 점과 그렇지 못하였던 점은 무엇이며, 위로를 주었던 점과 낙담을 주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성향, 태도, 감정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가? 경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긴장 상태나 의견 충돌이 있었는가? 어떤 주제나 사안이 다양한 시각들을 도출해 내었는가? 전반적으로 이 체험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져다주신 결실은 무엇이었는가?

- 지역 모임들에서 나온 피드백 가운데 특히 중요하거나, 놀랍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지평이 열렸는가?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나 실생활 경험이 있었는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관점이 강한 울림을 주었는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관점은 무엇이었는가?
- 전반적으로 현재의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지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현실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공동체에 어떤 영감을 주셨는가? 참가자들은, 교회의 영성 생활, 문화, 태도, 구조, 사목 실천, 관계, 선교 활동에서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교회 부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교회를 초대하시어 시노달리타스를 키우게 하고 계시는가? 참가자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바람과 열망을 표현하였는가?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볼 때, 교구는 더욱 공동합의적이 되는 데에 어떤 순서들을 밟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는가? 온 교회와 친교를 이루며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우리 교구가 앞으로 밟아 나갈 순서들은 무엇인가?
- 어떤 문화적 이미지(들)이 우리가 체험한 시노달리타스를 분명히 표현하는가?

종합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팀으로 모여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소규모 팀은 교구장 주교와 교구 책임자(들)와 협력하여 종합하는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제출된 내용들을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팀의 모임은 성령의 인도 아래 교구 전역의 하느님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자체로 시노드 정신을 따른 영적 식별을 해야 한다.

각 교구는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 이전이나 이후에 교구 종합을 마련할 수 있다. 단 그 모임의 결과들이 교구 종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되도록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가 종합에 반영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의 본보기로 초안 작성 팀 구성원들은 물론 피드백을 종합하는 과정도 모든 이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따르는 교구 여정의 시금석으로 종합의 초안이 마련되면 공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교구 종합을 주교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하느님의 백성이 교구 종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주교대의원회의